

高麗 末 金成雨 부대의 왜구토벌에 관한 군사학적인 검토

이 재 준*

1. 머리말
2. 고려군과 왜구의 규모 및 전투시기
3. 고려군의 부대배치
4. 흑포 및 의평리 전투의 기동형태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 말 오늘날의 충남 보령지역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고 전해지는 김성우(金成雨)에 대한 기록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내용은 정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지역전사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당시 고려군이 주둔했다고 전해지는

* 육군대령

‘병하지벌’¹⁾에 1992년 군부대가 이전하면서부터이다. 이후 김성우의 전적은 병하지벌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역대 지휘관들의 노력²⁾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 계기로 인하여 2010년에는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고 TV방영³⁾에 이르러 세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김성우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사후 100여 년 뒤인 1501년에 세워진 그의 아들 김남호(金南浩)의 묘비⁴⁾에 나타난다. 묘비문⁵⁾에 의하면 “김성우는 고려시중 김주정(金周鼎)⁶⁾의 후손이며 판도판서 김윤장(金允臧)⁷⁾의 아들로 ‘절충장군’⁸⁾ 전라도 우도 도만호⁹⁾로 왕명을 받고 보령을 지나다가 청라 땅을 좋아하여 정착함으로서 집안을 이룬”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왜구토벌에 관한

-
- 1) 천수암 주지 석정섭님 전언, (2005. 7. 4). “현재 8361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지역은 김성우 장군의 고려군이 주둔하였기 때문에 ‘병하지벌’이라고 부른다.”
 - 2) 8361부대 역대지휘관인 최학수 대령은 '93년 김성우 장군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 대천해수육 상주막에 김성우 장군 전적기념비 내용을 지었고, 김병운 대령은 '94년 해수육장 관암 전적 기념비 내용을 지었으며, 백승민 대령은 '97년 김성우 장군 자료집을 재 발간하였다. '99년 권혁순 대령은 청라면 별지 장군의 묘지 앞 전적 추모비 내용을 지었고, '06년 이재준 대령은 김성우장군 전사를 책자를 발간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 3) MBC 프라임 다큐, 124회차, “사라진 역사의 미스터리, 장군 김성우”. (2010. 9. 14. 방영)
 - 4) 보령시 독정에 위치하고 있고, 지은이는 김성우의 4대 후손 김극성(1474~1540)이다.
 - 5) 金克成 지음, 「金南浩비문」, “侍中諱周鼎之後 世居光州 由侍中若于世 有諱流 官卒林郎監察御史 御史生奉翊大夫版圖判書允臧 判書生折衝將軍全羅道右道都萬戶諱成雨 以王命討海寇 師過保寧 見樂土爲墟 因家焉”
 - 6) 『국역 고려사』 23, (원전 권104, 열전17), (동아대학교, 도서출판 민중문화, 2006) pp. 244~250. 원종 5년 장원급제하고 1281년 萬戶로 임명되었다. 충렬왕 때 侍中인 知都僉議事 역임하였으며 시호는 文肅이다.
 - 7) 『국역 고려사』 10, (원전 권38, 세가38, 공민왕1), 위의 책, p.37. ‘공민왕 2년(1353) 원의 만만태자가 김윤장의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의 딸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보아 비문에 나와있는 김윤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 8) 류재하, 『고려 왕조사』 부록 6, (서울, 학문사, 2000), p.412. 고려 위계 변천 표에 의거 정4품 상으로부터 정6품 상까지 9품계에 장군명칭이 사용되나 절충장군이란 명칭은 기록에서 확인이 안 된다. 장군 호칭은 1666년 송시열이 지은 김해수(김성우 8대손)의 묘갈에 ‘왜구를 토벌하여 장군이라 칭 한다’라고 되어 있다.
 - 9) 『국역 고려사』 11, (원전 권43, 세가43, 공민왕6), 앞의 책, p.22. 만호부의 관직으로 충렬왕 26년(1300)에 설치된 수군만호부 직제에서 확인될 뿐 임명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후 공민왕 23년(1374) 水軍이 재건되면서 도만호는 만호와 구별되어 나타난다. 도만호는 각 도의 수군 최고 지휘관으로 병선을 管領하고 아래에 萬戶, 千戶, 領船頭目人 등 수군 지휘관을 통솔하였다.

기록은 『우정집(憂停集)』에¹⁰⁾ 포함된 이언적(李彦迪)¹¹⁾이 지은 김극성(金克成)의¹²⁾ 행장에 나타나 있다. 1541년에 지은 행장에 의하면 “전에 도만호 공께서 자제들을 가르치기를 내 평생 기록할 만한 덕이 없구나. 여러 차례 왜구를 물리쳤으니, 비록 저들이 추한 무리이나 살육을 너무 많이 하였구나. 살육은 도가에서 꺼리는 것이니 너희들은 오직 덕을 수행하여 출세할 뜻을 깨끗이 없애면 대대로 덕을 보전 하리라”라고 하여¹³⁾ 김성우의 유훈 속에 왜구토벌 내용과 함께 그의 세속적 권력에 대한 초월적 성품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 당시 왜구토벌과 관련된 지명유래들이 조선중기 이후 각종 문집과 지리지, 읍지 등에 나타나고 있다. 그 중 1757년 발행된 전국 읍지인 『여지도서』에 의하면 “군대가 보령을 지날 때 보령은 오랫동안 왜구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김성우 공이 그들을 모두 무찔렀다. 군대가 들어온 문이라 하여 군입포(軍入浦)라 명명하게 되었고, 죽은 왜구의 시체가 개미떼와 같았다고 하여 의평(蟻坪)이라 명명되었다”¹⁴⁾와 같이 옥마봉(玉馬蜂), 비도봉(飛刀峰), 북병평(伏兵坪), 관암(冠岩) 등 각종 지명유래를 김성우와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들 사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김성우는 선계 김주정(金周鼎) 이후 만호를 세습하고 전라도 서해안 지역의 도만호로서 왜구를 격퇴하고 돌아오면서 보령지역의 왜구를 소탕 섬멸하였고,¹⁵⁾ 정사에는 없지만

10) 憂停은 金成雨의 4대 후손인 金克成의 호이며 憂停集은 그의 문집이다.

11) 호는 회재(晦齋) 성종~명종(1491~1553)때 인물로 문과에 급제하여 좌찬성을 지냈다. 조선시대 성리학 정립에 선구적인 인물로서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12) 『중종실록』 47, (원전 권93, 35년 4월), (서울,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1), p.15. 호는 우정(憂亭)이고 시호는 충정(忠貞)으로 성종~중종(1474~1540)때 인물로 23세(1496)에 생원시에 장원하고, 25세(1498)에 별시 문과에 장원하였으며, 중종반정의 공신으로 30여년 동안 관료생활 중 최종 우의정에 봉직하였으며 중종35년에 보령에서 작고하였다.

13) 民族文化 推進會, 『韓國文集叢刊』 18輯, 「憂亭集」 (서울, 1988), p.434. “初 都萬戶公 戒子弟曰 吾平生無德可紀 累鑿倭寇 彼雖醜類 殺戮過多 道家所忌 汝輩能性德是修 而掃劫求世之念 則庶保世德”

14) 『輿地圖書』 12권, 忠淸道 保寧, (전주대학교, 디자인 흐름, 2009), p.69. “帥過保寧時 保寧 久爲倭寇巢穴 公盡剿滅 軍入海門而有軍入浦之名 賊屍屯蟻故蟻坪”.

15) 최근복, 「고려절신 김성우 장군과 보령」, 학술대회 논문집 『고려절신 김성우장군 재조명』,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p.57.

장군의 왜구토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과 정치적 욕심을 경계하며 인간의 기본 덕목을 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진 인물¹⁶⁾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지 인간 김성우에 대한 연구와 그의 성품이나 그의 가계 등에 관한 연구에 국한된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당시의 고려군과 왜구의 규모, 전투시기, 고려군의 배치나 전술 등 보령지역 왜구토벌 전황에 대한 검토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김성우가 이끄는 고려군의 규모와 전투 시기를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지명에 대해 군사적 지형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고려군의 배치와 기동로를 판단하고 나아가 고려군의 전술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지형지물의 이용에 대한 전술적 사고는 전근대시대인 과거나 현재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지형에 대한 현대의 군사학적 해석을 과거의 전투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보령에서의 왜구토벌 전투를 복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인간 김성우에 대한 연구를 넘어 그의 왜구토벌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여 전사(戰史)로서 자리매김할 수 것이다. 또한 지형에 대한 군사적 평가와 분석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지형의 전술적 이용에 대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려군과 왜구의 규모 및 전투시기

역사적 사실들을 역사기록이 다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숨겨진 역사는 편린의 한 부분을 가지고서도 그 사실을 발굴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 역사적 편린을 시대적 상황과 연계하여 유추하고 비판한다면, 그 사건의 사실여부 내지는 사실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고려 말의 기록에서 군사제도 및 직책, 그리고 시대적 상

16) 윤용혁, 「고려 말 보령지역의 왜구와 김성우 장군」, 위의 학술대회 논문집, p.127.

항 등을 검토하여 고려군과 왜구의 규모를 알아본은 물론 김성우의 보령지역 왜구토벌 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도만호(都萬戶) 김성우의 부대규모

김성우의 관직은 1501년 그의 아들묘비에는 ‘절충장군 전라우도 도만호’로 표기되고 있고, 200년 뒤에 그의 묘비¹⁷⁾에는 ‘초토영전사’가 추가되고 있으며 김극성(金克成) 신도비에는¹⁸⁾ ‘전라도 도만호’로, 김해수(金海壽) 묘비에는¹⁹⁾ “왜 토벌 공로로 장군이라 칭한다.” 등이다. 이 중 ‘초토영전사’는 조선시대 직함이며 ‘절충장군’은 앞의 주 8)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정식 직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적합하리라 판단되는 ‘전라우도 도만호’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만호는 징기스칸의 몽고제국 친위대 구성단위에서 비롯된 원(元)의 군제로 고려에서는 고종 때부터 임명되기 시작했다.²⁰⁾ 김성우의 증조부 김주정(金周鼎)은 원의 제2차 일본정벌 단행 직전 1280년 충렬왕 6년에 원으로부터 만호를 제수 받았으며,²¹⁾ 김성우가 이를 세습한 것으로 보인다.²²⁾

만호가 지휘하는 군사부대인 만호부로는 1277년 충렬왕 3년의 순마소가 확대 개편된 순군만호부와 충렬왕 7년 금주만호부, 이어 전라도진변, 탐라,

17)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발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1607년에 건립되었고 지은이는 김경지(金景祉)로 金克成의 손자이다.

18)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늑적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1613년에 건립되었고, 지은이는 이정귀(李廷龜)(1564~1635)로 호는 월사(月沙) 본관은 연안이고 조선중기 한문사대가의 한사람으로 대제학이 되었다 우의정, 좌의정을 지냈다.

19)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장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1666년에 건립되었고, 지은이는 송시열(宋時烈)(1607~1689)로 호는 우암(尤庵)이다. 선조에서 숙종시대 활동했던 주자학의 대가로 울곡(栗谷) 이이(李珣)를 정통으로 계승했고 김장생의 문하에서 김해수와 함께 수학했다.

20) 최근성, 「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研究」, 『관동사학』 3, (강릉, 원진문화사, 1988), pp. 49~50. 1231년 홍복원(洪福源), 1258년 조휘(趙暉), 탁청(卓靑), 1270년 최탄(崔坦), 한신(韓愼) 등이 고려를 배반하고 원에 투항하여 萬戶가 되었다.

21)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 집성(하)』, (서울, 상현문화사, 2006), p.654. 『국역 고려사』 4, (원전 권 104, 열전 17, 김주정 전), 앞의 책, pp.249~250.

22) 최근묵, 「고려절신 김성우 장군과 보령」, 앞의 학술 대회 논문집, p.23.

서경만호부²³⁾ 등이 설치된다. 이들 만호부는 공민왕의 반원정책으로 폐지되면서 공민왕 5년 만호·진무·천호·백호 등의 패를 회수하였다.²⁴⁾ 대신 양광도와 전라도에 안무사를 파견해 포왜만호를 겸하게 하였다.²⁵⁾ 또한 고려 말에 이르러 만호부 혁파와 함께 도순문사가 진변만호가 수행하던 직임을 계승하여 도순문사 중심의 지방군 지휘체제가 수립되었다.²⁶⁾ 이후 우왕 때에는 도순문사 외에 원수가 파견되어 도내 육수군(陸守軍) 지휘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파견되는 원수의 수가 많아지면서 기강이 문란해지고 지휘체계에 혼란이 발생하였다.²⁷⁾

한편 공민왕대 수전의 필요성이 상소²⁸⁾되어 1377년에 전함 800여 척, 1382년에는 거함 130여 척을 만들어 전국의 요충지에 배치하였다.²⁹⁾ 이렇게 재건된 수군은 도만호를 비롯한 만호, 천호, 營船頭目人 등 만호부체제로 지휘체제가 정비되었다.³⁰⁾ 그러나 수군의 지휘체통상에 만호³¹⁾ 이외에 해도원수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는데³²⁾ 수군도만호는 점차 해도원수의 지휘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³³⁾ 또한 고려 말에는 지방 진수군의 번상

23) 최근성, 「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研究」, 앞의 간행물, pp.58~61. 치안담당 巡軍萬戶府는 1300년 설치되었고, 1281년 金州萬戶府(후에 合浦萬戶府), 1290년 全羅萬戶府, 1293년 西京萬戶府, 1301년 耽羅萬戶府 등이 설치되어 왜구 등 외적침략을 방어하였다.

24) 『국역 고려사』 10, (원전 권39, 세가39), 앞의 책, p.69.

25) 『국역 고려사』 11, (원전 권44, 세가44), 위의 책, p.102.

26) 오종록, 「高麗 末의 都巡問使」, 『震檀學報』 62호, (震檀學會, 1986), p.16.

27) 『고려사』 7, (권81, 지35, 병1, 兵制), (북한·사회과학연구소, 여강출판사, 1991), p.461. 우왕 5년 5월에 원수의 수가 많아 군령이 여러 계통에서 나오므로 1명만 제외하고 모든 원수를 혁파하고, 각 도에 장수를 미리 포치하지는 諫官의 상소가 있었다.

28) 『고려사』 7, (권83, 병3, 船軍), 위의 책, pp.540~542. 李禧, 鄭准提 등이 수전의 필요성을 상소했다.

29) 『국역 고려사』 25, 열전 6, (원전 권 113, 열전 26, 최영 전), 앞의 책, p.258.

30) 『고려사』 7, (권 83, 병3, 船軍), 앞의 책, p.542. 王旨에서 확인할 수 있음.

31) 최근성, 「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研究」, 앞의 간행물, pp. 92~98. 부표 1.2에 만호 제수자는 金周鼎 이후 총 145명이며, 공민왕 23년 수군 재건 이후 만호 제수자 53명 중 수군 만호는 35명으로 都萬戶 6명, 00道萬戶 7명, 00만호 20명, 만호 2명이었다.

32) 오종록, 「高麗後期の 軍事 指揮體系」, 『國史館 論叢』 제24집, (國史編纂委員會, 1991) pp. 254~255. 부표에 공민왕 23년 이후 양광도 등 각 도의 원수는 총 107회가 나타난다. 그 중 都元帥 2회, 道元帥 11회, 上元帥 12회, 副元帥 18회, 元帥 64회로 나타나고 있다.

33) 최근성, 「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研究」, 앞의 간행물, p.87.

입진이 중단되고 국가재정이 피폐해지면서 만호 중심의 독자적인 방위체제가 나타나기도 한다.³⁴⁾

도만호는 1360년 공민왕 9년 안주군민만호부도만호 안우(安祐),³⁵⁾ 1371년 공민왕 20년 서경 도만호 안우경(安遇慶)³⁶⁾ 등이 있고 수군으로는 1377년 우왕 3년 6월 전라도 수군도만호 정룡(鄭龍),³⁷⁾ 1389년 공양왕 원년 10월 양광 좌·우도 수군도만호 박인우(朴麟佑)³⁸⁾ 등이 있다.³⁹⁾ 당시 박인우에게 내려진 왕의 명령에 의하면 도만호는 1도내 수군의 최고 지휘자로서 도내의 전 수군과 병선을 지휘하면서 사변에 응하지 못하는 병선의 대소 군관과 도내 만호(道萬戶)를 군법에 의해 단죄하도록 하고 있다.⁴⁰⁾ 공양왕 2년에는 양광, 전라, 경상 등 해도와 연해처에 만호가 배치되었는데⁴¹⁾ 보령 남포에도 만호가 파견되었다.⁴²⁾

이들을 종합해 김성우의 직책과 부대규모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도만호는 전 수군과 병선을 지휘통제 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주 31)에서와 같이 수군 재건 이후 6명이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김성우는 보령에 정착하여 주둔하고 있었다. 만약에 김성우가 도만호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하 만호에 대한 책임감과 임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어느 한 지역에 주둔 또는 정착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예측된 만호가 없는 소규모였기 때문에

34) 권영국, 「고려 후기 군사제도, 군역제도」,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5), p.190.

35) 『국역 고려사』 10, (원전 권39, 세가39), 앞의 책, p.114.

36) 『국역 고려사』 11, (원전 권43, 세가43), 위의 책, p.22.

37) 『신편 고려사』 4, (원전 권 133, 세가 46), (서울, 신서원, 2008), p.303.

38) 『고려사』 7, (권83, 지37, 船軍),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여강 출판사, 1991), p.542.

39) 최근성, 「高麗 萬戶府制에 관한 研究」, 앞의 간행물, p.91.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던 5만 호부를 폐지한 후 고려 자주적으로 동서북면에 翼軍의 형태로 만호부를 설치하고, 공민왕 말엽에는 하삼도에 수군 만호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40) 『고려사』 7, (권83, 병지3, 船軍), 앞의 책, p.542.

41) 『신편 고려사』 4, (원전 권45, 세가45, 공양왕 2년 1월), 앞의 책, p.536. 해도만호는 우왕 때도 있었으나, 공양왕 때 연해처 만호를 설치하여 감무를 겸하게 하였다. 파견된 만호의 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42) 오중록, 「高麗 末의 都巡問使」, 『眞檀學報』 62호, (眞檀學會, 1986), p.29. '동문선' 권 81, 기, 태안군 신창기를 인용하여 고려 말 보령 남포에 만호가 파견되었다고 하나 그가 김성우였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보령에서의 독자적인 왜구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박인우에게 주어졌던 왕의 명령에 도내 만호를 도만호로 기록하고 있으며 주 31)과 같이 7명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김성우의 직함은 도만호였다고보다는 전라도 도만호가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에 관한 비문의 기록에 그의 직책을 도만호로 기록한 것은 만호, 즉 도만호를 후대에 도만호로 승격시켰거나, 기록과정에서 부회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1377년 우왕 3년 7월 전라도 수군도만호 정룡(鄭龍)이 병선 2척으로 제주로 출동하여 왜선 1척을 격파한 점과,⁴³⁾ 김성우가 보령에 정착하려면 병선이 적었을 것이므로 김성우의 병선규모 역시 소규모인 2~3척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함선 당 병력 수는 수군 재건 초기인 1380년 나세의 진포대첩 시 척당 30명이었으나, 1382년 최영이 130여 척의 거함을 건조하였고 조선 초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시 척당 76명⁴⁴⁾이었다. 이 사실을 고려해보면 김성우 활동시기인 우왕 말년 공양왕 초기는 척당 70~80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성우의 고려군 병력 수는 140~240명으로 추산된다.

2) 고려 말 보령지역 왜구의 규모

역사기록에서 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赫居世)조(8년, B.C. 50)이며 왜구라는 용어는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릉비문>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대에 있어서 유독 신라만 왜구의 침범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⁴⁵⁾

고려시대에는 고종 10년(1223)에 왜구에 대한 기록이 처음 『고려사』에 등장하게 된다. 이후 왜구의 침구가 빈번하게 되는 것은 경인년인 충정왕 2년(1350)이다. 이러한 고려시대 이후의 왜구에 대해서는 이영(李頴)은 13세기 왜구, 경인년 이후의 왜구, 조선시대 왜구로 분류하고 있다.⁴⁶⁾ 13세

43) 『신편 고려사 절요』 下권, (원전 권 30, 우왕1), (서울, 신서원, 2004), p.439.

44) 『세종실록』, 권4, 원년 6월 庚寅條.

45) 국방군사연구소, 『왜구토벌사』, (서울, 1993), pp.1~6.

46)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 (서울, 에피스테메, 2007), p.14.

기 왜구는 연해 주민들에게 폐해를 입히거나 조운선의 안전을 위해하는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인년 이후의 왜구는 위기에 몰린 쇼니 요리히사(少貳頼尙)가 병량미를 얻기 위해 고려를 침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지속되는 왜구의 침구도 일본의 내전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과 병량미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과, 일본 국내 전투에서 패배한 뒤 일시적으로 도피하기 위해 침공해 왔던 것이었다.⁴⁷⁾ 따라서 이때의 침구지역은 고려의 연안에서 내륙까지 전 국토가 대상이 되었으며 조운선 약탈, 지방관청 습격 및 방화, 살인, 부녀자 폭행은 물론 백성을 납치하여 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 말의 왜구는 신라나 고려 전기 그리고 조선시대의 왜구와는 다른 단순한 도적이 아닌 정규군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경인년 이후 왜구 침구횟수나 규모는 1350년 이후부터 고려 말까지의 약 40년 동안 591회로, 선단은 최소 20척에서 최다 500척까지의 대규모였다.⁴⁸⁾ 왜구의 선박에 관해서는 대선, 중선, 소선으로 나누고 중선은 100여명 이상의 인원이 승선 가능한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⁴⁹⁾ 그러나 실제 포획 살상한 인원을 『고려사』에서 확인하면 8명,⁵⁰⁾ 13명,⁵¹⁾ 15명,⁵²⁾ 18명,⁵³⁾ 32명⁵⁴⁾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근거로 고려 말 보령지역에서 김성우와 싸웠던 왜구의 특성이나 규모에 관해 역사학적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보령지역에서 왜구는 오랫동안

47) 이영, 위의 책, pp.53~54.

48) 『고려사 절요』 下권, (원전 권30~31), (민족문화추진회, 신서원, 2004), pp.435~472.

49) 국방군사 연구소, 앞의 책, p.5.

50) 『신편 고려사』 4, (원전 권39, 공민왕10년 2월), 앞의 책, p.85. 왜선 5척을 나포하여 30여명을 살상하거나 포로로 잡았다.

51) 『신편 고려사』 3, (원전 권37, 충정왕2년 5월), 위의 책, p.634. 순천부에서 왜선 1척을 포획하여 13급을 뱏다.

52) 『신편 고려사』 2, (원전 권22, 고종14년 4월), 위의 책, p.574. 금주에서 왜선 2척을 나포하여 30여급을 뱏다.

53) 『국역 고려사』 12, (원전 권137, 우왕14년 8월), 앞의 책, p.105. 거제에서 왜선 1척을 포획하여 18급을 뱏다.

54) 『고려사』 10, (권116 열전 29),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여강출판사, 1991). 박위가 왜선 1척을 포획하여 32급을 뱏다.

이곳을 소굴로 삼고 있었다.⁵⁵⁾ 오랫동안 소굴로 삼고 있었다는 것은 일정한 지휘체제를 갖추고, 근거지를 구축하여⁵⁶⁾ 활동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령에 주둔하던 왜구의 행태나 규모는 일본 국내의 남북조 전쟁에서 패한 무장 집단이거나 병량미를 조달하기 위한 정규군 수준의 집단이어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보령지역에 소굴을 이루었던 왜구가 소규모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지를 구축하고 활동했던 왜구는 소형 선박 이상이며, 그 척수도 주48)의 내용과 같이 최소 20척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령에서 주둔했던 왜구의 함선 1대당 인원은 고려군이 전투에서 살상했던 최소 8명에서 최대 32명의 평균치인 17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함선 한 척당 인원이 이와 같고, 보령에 주둔했던 왜선이 20척 정도였다면, 보령주둔 왜구는 최소 340명이 되며, 32명 계산 시 최대 640명까지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왜구토벌 전투시기

고려 말에 김성우의 보령지역 왜구토벌 전투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남지역의 왜구 침구기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충남지역의 주요 왜구 침구루트는 금강과 아산만 연안이었다. 금강과 아산만 루트는 내륙으로 깊숙이 침구할 수 있는 루트이며, 이와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유형은 연해지역을 직접 공격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령지역 왜구 침구는 연해지역에 대한 개별 침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⁵⁷⁾

충남지역의 왜구 침입횟수는 전국 도별로 판단해 볼 때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남 다음으로 많다.⁵⁸⁾ 1350년 이후 충남지역의 왜구침입 횟수

55) 『輿地圖書』 12권, 忠淸道 保寧, (전주대학교, 디자인 흐름, 2009) p.133 / (원문 p.69).

56) 육군본부, 야전교범 100-5, 『작전요무령』, 1996, p.11-1. 근거지는 유격기지로써 식량, 탄약, 구급약품 및 제한된 탄약 등을 획득하는 지역으로 장기간 동안 유격전부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57) 윤용혁, 「고려말 보령지역의 왜구와 김성우장군」, 앞의 학술대회 논문집, p.111.

58) 라중우, '홍건적과 왜구', 「고려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한국사』 2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 p.397. 왜구침입에 관한 기록은 경남 97회, 충남 78회, 경기 65회, 경북

는 51회이며 왜구의 수급을 1급이라도 벤 것은 12회 뿐이고 39회는 무방비 내지는 대패한 것으로 나타난다.⁵⁹⁾

『고려사』에 보령지역 왜구침구는 우왕 7년, 9년, 창왕 원년 등으로 3회로 기록되어 있다. 우왕 7년 1381년 11월 왜구가 보령 현에 침입하고, 우왕 9년에는 보령 현이 왜구에게 함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함락되었다는 보령 현은 현재 주포면에 위치한 보령 읍성⁶⁰⁾이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왕 3년(1377) 남포(藍浦)지역은 왜구로 인하여 인물이 사망으로 흠어졌다.”는 기록이 있다.⁶¹⁾ 또한 “공양왕 2년(1390) 남포에 진을 설치하고 유망민을 다시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다.⁶²⁾ 여기서 남포 현은 보령 현에서 50리 남방에 위치하고 있으며,⁶³⁾ 지금은 고남포(古藍浦)라고 부르는 웅천읍 수부리에 해당된다. 현재 남포면 읍내리에 있는 남포 읍성⁶⁴⁾은 조선 초 세종 때에 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 말 보령과 남포는 해로가 발달한 서해 연안의 군현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김성우는 어느 시기에 보령에서 왜구와 전투를 했을까? 보령의 왜구 관련 기록인 우왕 3년, 7년, 9년, 공양왕 2년 중 김성우와 관련이 있는 사례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왜구들이 소굴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인근의 현들이 함락된 뒤에 소굴을 이루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부리의 남포 현이 함락된 우왕 3년과 주포의 보령

55회, 전남 42회, 전북 36회, 강원 32회, 황해 28회, 충북 17회, 함남, 평북, 평남 각 10회 이내로 기록되어 있다.

59) 김상기, 『고려 시대사』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85), pp.837~863.

60) 보령시 주포면에 위치, 정대(鄭帶)의 <東軒記>에 “고려 말 경인년부터 바다도적의 피해를 입어 태조 경진년에 봉당에 성을 쌓고 이를 방어하는 곳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다. 읍성은 문화재자료 146호, 관아문은 충남유형문화재 40호로 지정되어 있다.

61) 『세종실록지리지』, 공주목 남포현, (서울, 문화재관리국 장서각, 영인년도 불상), 「藍浦縣」, p.76. “本百濟寺浦縣 新羅改今名.....洪武十三年庚申 因倭寇 人物四散”

62) 『세종실록지리지』, 위의 책, 「藍浦縣」, p.76. “庚午 始置鎮城 招集流亡”

63) 『신증동국여지승람』, 자권1 지권55, 남포, (서울, 고전간행회, 서경문화사, 1994), p.322.

64)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시도 기념물 제10호, 조선시대 1m 이상의 큰 돌로 축성되었다.

현이 함락된 우왕 9년 이후의 시기일 것이다. 그러면 김성우의 왜구 토벌 전투는 우왕 9년 보령 현 함락 이후로부터 공양왕 2년 사이가 될 것이다.

전투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을 검토 해보자. 김성우는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도이며 출생지인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령에 정착한 것으로 『신안읍지』와 『여지도서』 등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전하는 말 그대로 보령 청라 땅이 좋아 정착하였을까? 그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의 시대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주정의 3세손인 김종연(金宗衍)과 김성우는 6촌 관계이다.⁶⁵⁾ 김종연은 전라도 도원수로서 왜구를 크게 격퇴시켰으나 이성계를 죽일 모의를 꾀하였다 하여 붙잡혔다. 이후 두 번의 도망 끝에 그의 아내까지 순군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김종연이 잡혀 죽게 되는 사건이 공양왕 2년 발생한다.⁶⁶⁾ 이 사건의 영향으로 김성우가 왜구를 물리치고 개경에 돌아가지 않고 보령에 정착하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령 현 함락 시기와 김종연과 관련된 시대적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왜구와의 전투 시기는 우왕 9년에서 공양왕 2년이 사이라고 추정된다.

3. 고려군의 부대배치

1) 지명유래

지명은 일정한 지역의 명칭이다. 이 지명이 어느 한 사람이나 일부 사람의 뜻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산물

65) 『국역 고려사』 23, (원전 권104, 열전17), 앞의 책, pp.244~268. “金周鼎-金深-金承嗣(후에 金精으로 바뀜)-金宗衍”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용선, 앞의 책, p.655. “金周鼎-金流(金周鼎과 金璉 말과의 소생)-金允臧-金成雨”로 되어있어 『고려사』와 金周鼎의 『묘비문』을 비교 시 金宗衍과 金成雨는 6촌 관계가 된다.

66) 『고려사 절요』 下권, (민족문화 추진회, 신서원, 2004), pp.714~718.

이다.⁶⁷⁾ 이렇듯 지명들은 그 땅위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면서 명명되었을 것이다. 지명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을 후 생기는 경우와 지명이 있을 후 그 유래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떤 장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인구에 회자되다가 어느 순간에 지명으로 굳어졌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고대 이래로 지명을 담고 있는 역사 지리지들이 있어왔다. 그 중 『여지도서(1757~1765)』가 전국 현 단위 이상과 기타 지명의 연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1974년 한글학회 발행 『한국지명총람』과 1983년 건설부 국립지리원 발행 『한국지명요람』이 지명유래를 기록하고 있다.

지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위에 붙여진 이름으로 그 수가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몇몇 지리지나 지명총람이라 해도 모든 지명의 유래를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지명의 유래가 구전되고 있으면서도 기록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형분석을 위해, 구전되고 있거나 기록되어진 지명유래들 중 김성우의 부대 배치와 관계된 지명만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상주막(常住幕)

『한국지명총람』에 김성우 장군의 고려 군대가 상주하던 막이 있었다고 하여 상주막이라 칭하며 대천 해수욕장 구(舊) 광장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ii. 군헌(軍軒)(군마루)

고려군대가 있던 곳이라 전해지는 곳으로 대천 해수욕장 입구 흑포 삼거리 약 1km 직전방에 있으며, 1:5만 군사지도에 명기되어 있다.

iii. 해망산

보령시 요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성우 장군의 부대가 바다를 바라보며 왜구의 동태를 살폈기 때문에 해망산이라 칭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iv. 시루성

보령시 청라면 36번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지명 총람』에 고

67) 도수희, 『한국의 지명』, 대우학술 총서 553, (서울, 아카넷, 2003), pp.15~21.

려 때 김성우 장군의 지휘소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조선총독부에서 1918년도에 발행한 1:5만 지도에 甌城理로 표기되어 있다.

v. 병하지벌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려 때 김성우 장군의 군사들이 훈련하던 곳 또는 주둔하던 곳이라 전해지고 있다. 1999년도 판 군사 지도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디지털화 된 지도에는 보이지 않는다.

vi. 불무골, 담금이

청라면 향천리에 위치하며 『한국지명 총람』에 고려 때 무기를 만들던 곳으로 풀무간이라고도 한대라고 기록되어 있고, 담금이는 무기를 담금질하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는 청천저수지 안에 잠겨 있다.

vii. 창터

청라면 향천리 시루성 바로 아래 위치한 창터는 『한국지명 총람』에 고려 때 창을 만들던 곳이라 기록되어 있다.

viii. 둔대(둔터)

청라면 나원리에 위치한 둔대(둔터)는 청양군과 경계지역이며 고려 때 김성우의 고려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전해지나 『한국지명총람』에는 단지 과거에 군대가 주둔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2) 지형분석

위와 같이 부대가 위치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형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그 유래의 사실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보고 이를 통해 부대배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부대배치는 부대의 목적에 맞게 부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부대배치의 목적은 주로 공격이나 방어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 무기체계나 통신수단 등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형이 주는 이점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나 통신수단이 제한되었던 고려 말에는 오늘날보다도 더욱 지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이다.

고려 말 진수군은 대체로 주·군 또는 현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

다. 보령에도 남포와 보령에 현이 있고 남포에 공양왕 2년 진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옛 남포현과 보령현은 50여리 이격된 거리이다. 그런데 두 현은 우왕 3년과 9년에 왜구에 의해 함락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성우의 부대가 위치상으로 두 현 사이에 위치한 것은 그의 부대는 수군(水軍)으로서 진수군(鎭守軍)⁶⁸과는 다른 독자적인 왜구토벌 부대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국 그는 임의 지형에서 왜구토벌이라는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형을 고려하여 최적의 지역에 부대를 배치했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한다. 김성우의 부대배치를 지형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함이 바로 이런 점이다.

- i. **상주막**의 지형은 대천해수욕장의 북단에 해안을 향해 돌출된 지형으로 주변지형에 비해 다소 높은 100고지 이내에 해당한다. 돌출된 지형은 해안을 감시하는데 용이하며, 반도 형태로 돌출되어 있어 해안으로부터 상륙하는 적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지물에 해당된다. 오늘날도 여기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적인 특성은 해망산과 종격실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해바다 및 해안 감시와 주변통제에 중요한 지형에 해당된다.
- ii. **군현(군마루)**은 흑포 해안의 뒷산인 해망산 능선의 아래에 위치하여 비교적 병력이 주둔하기에 적합하다. 거리상으로는 상주막과 약 3km 이격되어 있으며 상주막에 이르는 해안통로가 평지로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상주막에 대한 통제 및 유사시 지원에 용이 했던 것이다. 지리적으로 안부진 해안의 중앙에 위치하여 왜구가 점거했던 흑포 외곽 4~5km 지역 전체를 통제하기에 용이한 지형이기도 하다.
- iii. **해망산**은 114고지로 상주막과는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약 4km 이격되어 있고, 시루성과는 약 10km 이격되어 있다. 해안의 고지대로서 원거리 바다를 관측할 수 있으며, 지휘소인 시루성과는 대천천을 따라 연결되어 있어 봉화통신에 용이한 지점이다. 오늘날도 이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68) 보령과 남포 현에 진수군이 배치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연해처에 부대가 주둔한다면 주로 주요지역인 현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iv. **시루성**은 대천천의 상류에 해당하며 지형적으로 병하지벌과 불무골, 창터 담금이 등의 중앙이며 상대적 고지에 있어 직접 지휘통제가 가능한 지형이다. 해망산과의 사이에 저지대를 두고 있어 유사시 봉화를 관측하기 용이한 가시거리 내에 위치한 곳이며 해망산과 둔터 등에 대한 간접 지휘통제는 물론 유사시 지원하기에도 적합한 위치이다. 또한 해안으로부터 충남 내륙으로 연결되는 주요 목에 해당하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적의 주요 접근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휘소로서 매우 적합한 지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v. **병하지벌**은 내륙으로 통하는 대천천 상류, 지금의 36번 도로로부터 약 1km 성주산 방향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인 특성은 외부의 관측을 회피할 수 있는 곳이며 608고지의 성주산에 의해 자연방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부대 주둔의 필수요건인 식수가 성주산 계곡으로부터 제공되어 부대 주둔에 최적지로 판단이 된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천혜적인 조건이 오늘날도 부대 주둔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 vi. **불무골과 창터, 담금**이는 시루성에서 통제 가능한 약 2km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성주산의 철광을 이용하기에 용이한 면도 있었겠지만 지휘소인 시루성 주변에 주둔지인 병하지벌과 함께 위치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전투지원시설이 지휘소와 함께 위치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vii. **둔대(둔터)**는 시루성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이격된 대천천의 상류와 충남 내륙으로 이어지는 스텝터 고개를 통제할 수 있는 지형이다. 지형적인 특성은 성주산의 줄기인 백월산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지휘소에 후방경계를 제공해 주는 한편 내륙이동 통로의 주요 목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다. 즉 시루성에 지휘소가 위치했을 때 반드시 통제되어야 하는 지형이기 때문에 김성우와 관련된 부대가 위치하였을 것이다.

상기 상주막이나 군현, 해망산 등은 흑포 전투 후 배치된 것으로, 시루성을 중심으로 보면 오늘날의 방어 작전에서 일반전초 운용지역으로 판단된다. 일반전초의 위치는 통상 양호한 원거리 관측과 사계를 제공받는 일련의 종격실 능선이며 적 접근로 통제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본부로부터

지원이 가능한 거리어야 한다.⁶⁹⁾ 따라서 지휘소인 시루성을 중심으로 볼 때 대천해수욕장 주변 부대 배치지역의 지형적 특성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형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지형평가와 더불어 지휘소라 전해지는 시루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⁷⁰⁾ 그 결과 시루성은 전형적인 테메식 산성⁷¹⁾으로 성을 쌓은 재료는 주변에 흔한 변성암을 이용하여 쌓은 석성이며,⁷²⁾ 성벽은 단곽성으로 삭토법⁷³⁾과 일부는 판축법⁷⁴⁾을 이용하여 쌓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시루성의 축성 방법을 볼 때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왜구에 대비하여 급조하여 쌓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 급조하여 쌓은 산성은 고려시대에 많으며 마을의 진산(鎭山)에 쌓은 산성과 달리 거란, 여진, 왜구 등 이민족의 침입 축선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시루성이 바로 외적의 침입 축선 상에 급조해서 구축한 면에서 고려시대 산성으로 판단이 된다. 이외에 수습된 유물 기와편, 토기편, 도기편, 청자편, 녹청자편, 백자편 등 70~80편을 분석한 결과⁷⁵⁾ 시대적으로 고려후기로 판단이 되고 지형의 특성상 군사적 목적의 누각이었으며, 비교적 높은 신분을 가진 자의 처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전래되는 지명에 대한 군사적 지형평가와 지표조사 결과 전해지고 있는 지명들은, 유래가 있고 나서 지명이 생겨난 것으로 고려 말

69) 육군본부, 『사단』, 야전교범 9-3, 2009, p.4~31.

70) 2010년 8월 이재 국방문화재연구원장과 연구원 2명과 필자가 이틀에 걸쳐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71) 반영환, 『한국의 성곽』, (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8), p.34.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정상부근에 테를 두른 듯한 형식으로 대개는 규모가 작은 산성에서 채택되고 있다.

72)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한국의 성곽과 봉수』, (서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91), p.245.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편집한 책에는 토축으로 쌓은 토성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한 결과 석성이며, 일부는 토석 혼축성이다.

73) 경사진 지반을 깎아 성을 쌓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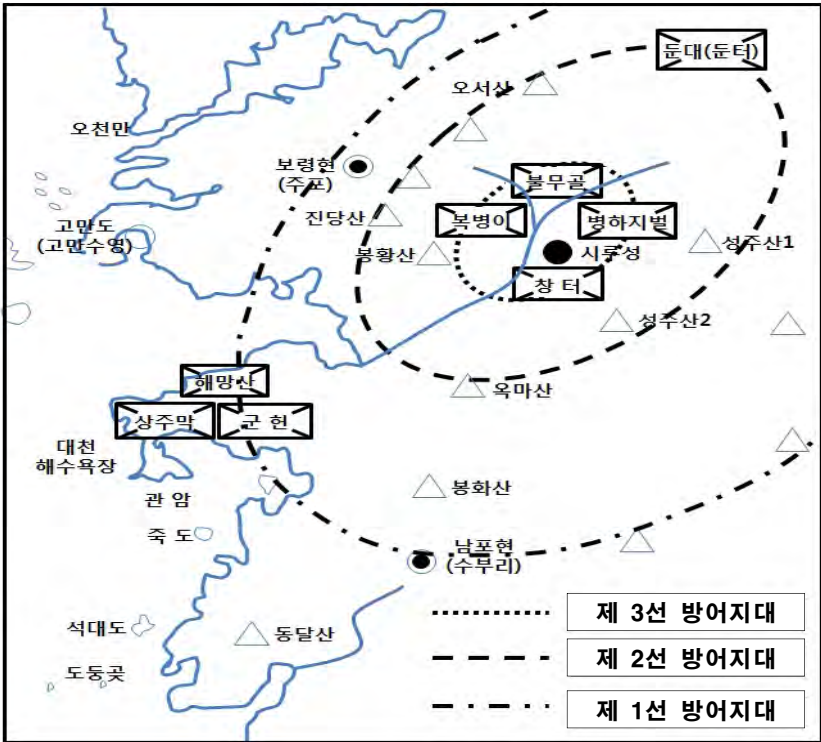
74) 땅을 파고난 뒤에 그 자리에 흙, 돌 등을 퍼서 다지는 뒤 채움식 공법이다.

75) 이재, 「보령 향천리 시루성의 성격」, 학술대회 논문집 『고려절신 김성우 장군 재조명』, (대전, 충남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2010), pp.84~87. 기와 편으로 숫기와 2점과 암기와 1점이 발굴된 점으로 보아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의 누각 내지는 처소로 판단하였다. 이외에 접시의 동체부에 해당하는 화초문이 상감된 청자도 사용자의 신분을 가늠케 하는 유물이었다. 기와편에서 중심을 이루는 어골문(魚骨紋)과 격자문(格字紋) 문양은 고려 후기의 표현방식이다.

김성우와 관련된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김성우와 관련하여 전래되는 지명유래들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 판단하기에 충분하였다.

3) 부대배치 종합평가

〈요도 1 고려군 부대 배치〉



이 절(節)에서는 지휘소였던 시루성을 중심으로 배치된 부대의 요도를 작성하여 분석함으로써 군사적 의의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지휘소인 시루성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고려군이 주둔하며 훈련한 병하지별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에는 고려군의 창고가 그리고 북쪽에는 무기를 만드는 담금이, 불무골 등이 위치해 있다. 이 모든 장소는 시루성에서 2~3km 반경 내에 위

치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3지대 방어개념으로 볼 때, 부대주둔지의 핵심 시설로서 이들 시설 자체가 제3선 방어진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제2선 방어진대로 동남쪽은 500고지 이상의 성주산, 옥마산 등과 북서쪽은 진당산, 봉황산 등 300고지 내외의 고지군과 791고지인 오서산 등이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북동쪽 내륙으로 통하는 길목의 6km 되는 곳에 고려군의 둔터(둔대)가 있어 주변지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는 부대를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선 방어진대는 외곽인 서남쪽 해안 통로로 볼 수 있는데, 10~13km 어간인 해망산, 상주막, 군현(군마루) 등에 제1선 부대인 전초부대⁷⁶⁾가 배치되어 있다. 이들 부대는 흑포 전투 후 전장지역 평정차원에서 배치된 부대이기도 하다. 또한 주포에 있는 보령 현과 수부리에 있는 고남포 현 등도 왜구의 접근경고 등 정보제공의 제1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제1, 2, 3방어진대 개념 외에 지리적 분석을 해보면 지휘소였던 시루성은 주요 시설인 보령 현과 남포 현의 중간에 해당하여 유사시 출동할 수 있는 공간적인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충남 내륙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주요 목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자연 지형의 보호를 받으며 해안과 두 현에 왜구 출현 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시공간적 중앙에 해당한다. 한편 이들 지역에 오늘날도 군부대들이 위치하고 있어⁷⁷⁾ 600여 년 전 김성우의 군사적 해안과 지형평가 능력이 탁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76)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야전교범 3-0-1, p.561. 전초는 본대의 정지, 숙영간 적의 관측과 기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본대의 지원 범위 내 운용되는 경계파견대이다. 육군본부, 『사단』, 야전교범 9-3, p.4-31. 전초는 연대 및 사단에서 전초를 운용한다. 이상을 유추하여 보면 독립작전이 가능한 부대에서 운용하는 전초를 운용했다고 볼 때 김성우의 부대는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77) '병하지별'에는 현재 '육군8361부대 지휘소'가 위치하고 있고, '시루성'은 오늘날 '육군 8361부대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常住幕' 바로 아래에 현재도 해안을 관측하는 '000 R/S'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海望山'에는 '공군8255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천 해수욕장 좌측 편에 '冠岩' 인근에는 '공군2388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부대들이 위치한 곳은 전략적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형으로서 지형에 대한 군사적 평가 시 공을 초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흑포 및 의평리 전투의 기동형태

1) 지명유래

보령지방에는 고려 말 김성우의 왜구토벌 전투와 관련된 지명들이 상당 수 전해지고 있다. 전해지는 지명들의 내용이 기록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신안현지(1412~1425)』와 이의 제4판이라 할 수 있는 『신안읍지(1748)』가 있으나 사본만이 전해지고 있다.⁷⁸⁾ 그러나 그 내용은 1757년부터 1765년에 편찬된 『여지도서』, 영조~헌종대의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1922년 『사가집(四可集)』, 1929년 『조선환여승람』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대동소이 한 면이 있으며, 20세기에 와서는 “이성계의 수차에 걸친 부름에도 불구하고, 김성우가 고려왕조에 절의를 지키고자 스킨리 고개에서 말을 베고 자결했다”고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된 지명유래를 검토함에 있어 전국 지리지인 『여지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신화적인 부분이나 후대에 부회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배제하고 부대기동과 관련된 지명만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겠다.

i. 군 입(軍入)

‘군드리’ 또는 군입리라고도 하며 신흥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이다. 지명유래는 “고려 때 김성우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곳”⁷⁹⁾이라는 내용과 “김성우가 왜 구를 내포로 유인하던 곳”이라는⁸⁰⁾ 내용으로 『여지도서』의 인물조와 산천조가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대천 해수욕장 구 광장 너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 대천 어항을 말한다.

78) 『신안현지』는 '93년 최학수 대령이 발간한 자료집 내용을 촬영한 사본내용이 '06년 발행한 『도만호 초토사 김성우 장군』에 수록되어 있으며, 하버드대 엔칭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신안읍지』는 영인본만 전하고 있다.

79) 『輿地圖書』 12권, 忠淸道 保寧 인물조, (전주대학교, 디자인 흐름, 2009), p.68. “軍入海門 而有軍入浦之名”

80) 『輿地圖書』 12권, 위의 책, pp.65~66. “軍入里浦 金成雨 討倭內浦時 引倭 于此浦因名焉”

ii. 군들재

기록에는 없으나 “고려 때 김성우의 군대가 넘은 고개”라 전해지고 있다. 지금 대천 여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iii. 관 암(冠岩)

관암의 지명유래는 “고려 때 김성우가 갯을 벗어 놓은 자리”라는⁸¹⁾ 내용과 “김성우가 왜구를 토벌할 때 갯을 벗어 놓은 곳”으로⁸²⁾ 『여지도서』의 인물조와 산천조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지금 대천 해수욕장의 백사장 남단 끝 바위를 칭하며 또 다른 표현으로 갯바위라 하기도 한다.

iv. 흑 포(黑浦)

옛날 명칭은 거먹개라고 불리던 곳이다. “죽은 왜구의 피가 갯벌을 검게 물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천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부근이며 김성우 장군의 전첩기념비가 세워져 있다.⁸³⁾

v. 복병평(伏兵坪)

복병이라고 부르며 이 지명유래는 “고려 때 김성우가 절벽의 험한 곳에 병사들을 숨겨놓았던 곳이다.”⁸⁴⁾ “고려 때 김성우가 왜구를 크게 파하였다고 한다.”⁸⁵⁾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의평리 서쪽에 해당 하는 서산 아래 마을로 지금은 청천 저수지에 잠겨 있다.

vi. 의평리(蟻坪里)

우리말로는 갬벌, 개미뜰로 불리고 있으며 이 지명유래는 “왜구의 시체가 개미떼와 같아서”⁸⁶⁾ “죽은 왜구의 시체에 개미떼가 모여 독을 이루어서”⁸⁷⁾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지금 청라면 청천 저수지 상류에 해당하는 평평한 들로서 우단 능선 너머에 병하지벌이 위치하고 있다.

81) 『輿地圖書』 12권, 위의 책, pp.68~69. “浦石卸冠故有冠岩”

82) 『輿地圖書』 12권, 위의 책, pp.65~66. “冠岩 金成雨剿滅倭寇時脫冠于此因名焉”

83) 김성호, 『고려충신 김성우 장군 충훈사지』, (서울, 예인들, 1992), p.20. 전첩사적비(흑포)

84) 『輿地圖書』 12권, 앞의 책, pp.68~69. “高麗金成雨...兵伏花崖而有伏兵坪”

85) 한글학회, 『한국지명 총람』, 충남 보령편, (서울, 보진재, 1974), p.427.

86) 『輿地圖書』 12권, 앞의 책, p.133. “賊屍屯蟻故蟻坪”를 해석함에 있어 최근목과 황의천이 역주자와 동일하게 “죽은 왜구의 시체가 개미떼와 같이 많아서”로 해석하고 있다.

87) 『한국지명 총람』, p.427와 『한국지명 요람』, p.354는 “시체에 개미 떼가 모여 독을 이룬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지형분석

이 절(節)에서는 앞서 제시한 전투와 관련된 지명유래를 가진 지명들에 대한 군사적 측면의 지형분석을 통하여 부대의 기동형태와 전술을 이해하고자 한다. 기동은 차후 작전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적보다 유리한 위치로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단순한 이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기동계획에는 작전개념, 지면편성, 전투편성 등이 포함되며⁸⁸⁾ 기동을 작전의 형태로 구분하기도 한다. 공격기동의 형태는 공격부대를 유리한 위치로 이동시켜 목표에 접근하는 전투력 운용방법으로 포위, 돌파, 정면공격, 침투기동, 우회기동 등이 있다. 또한 방어 작전의 한 형태로 기동방어가 있다.⁸⁹⁾ 이러한 작전의 형태는 지휘관이 자기 부대의 능력과 지형을 평가하여 판단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기동형태를 분석해보기 위해 선정된 지명위주로 지형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 i. **군입 또는 군입리**는 대천 해수욕장 너머 어항이 위치한 곳이며, 최근 묵은 김성우의 고려군이 군입으로 상륙한 것으로 보았다.⁹⁰⁾ 그러나 어항지역은 상륙 후 극복하여야 하는 해망산 능선의 산이 험준하여 교두보로서는 물론 흑포로의 공격로로 보기엔 부적합하다. 또한 관암의 지명유래가 전투를 마무리 짓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을 볼 때 공격방향의 측면에서 보면 상륙지점으로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라 할 수 있다. 한편 어항지역 앞바다의 물결이 대천천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군은 물결을 따라 좀 더 내륙 깊숙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군입은 기록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군대가 들어온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은 왜구를 유인하던 곳이라는 측면의 지형분석이다. 군입은 보령 연안에서 서해 쪽으로 돌출된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군입으로부터 내륙으로는 대천천으로 연결되어 왜구를 유인하기에 안성맞춤인

88)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야전교범 3-0-1, 2006, p.137.

89) 육군본부, 『사단』, 야전교범 9-3, 2009, p.3-47, p.3-49, p.4-19.

육군본부, 『보병대대』, 야전교범 31-3, 2010, p.4-9, p.5-9.

90) 최근묵, 「고려절신 김성우 장군과 보령」, 앞의 학술대회 논문집, p.32.

지형이다. 특히 해안 우안에 해망산이 위치하고 있어 왜구와의 접촉 및 유인여부를 봉화를 통해 시루성으로 전달하기 용이한 지형적 특성도 함께 갖추고 있다.

- ii. **군들재**는 어항 앞바다의 물골을 따라 약 7km 정도 북동쪽으로 이격된 곳이다. 왜구의 소굴로부터 멀리 이격되어 있어 안전하게 접안이 용이한 곳이며, 해안에 접하여 40고지의 구릉이 있어 상륙 후 부대 재편성 공간과 시간을 벌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해망산 능선에서 내륙 쪽으로 위치한 124고지의 우뚝 솟은 왕대산 고지는 고려군 이동 간 방향유지에 중요지형지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한편 이곳은 흑포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왜구에 노출될 위험도 없고 왜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어 흑포의 왜구를 고려 시 상륙지점으로 적합한 곳이다.
- iii. **관암**은 갯바위라고도 칭하는데 대천해수욕장의 백사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소나무 숲으로 보이나 실체는 험한 바위들로 형성되어 은폐와 엄폐에 용이한 지역이다. 따라서 흑포에서 격멸되고 남은 왜구가 해안을 따라 관암 지역으로 도주하여 은폐하였음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러기에 김성우가 흑포의 잔적을 관암에서 최종 격멸하고 나서 갯을 벗은 곳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이 최종격멸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또 다른 이유는 흑포에서 고려군의 공격을 받은 왜구는 이곳을 통하여만 바다로 도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 iv. **흑포**는 대천해수욕장 입구 1km 전방에 위치한 삼거리 부근이다. 이 지역은 1986년 남포 방조제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바다였으며, 방조제 설치 당시에는 염전을 하던 지역으로 지질은 사양토로 되어 있었다.⁹¹⁾ 또한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지도를 보면 지금의 해수욕장이 흑포 지역을 감싸 안고 있다. 즉 해수욕장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여지도서』에 기록된 혈(穴)과 같은 지역이다.⁹²⁾ 즉 흑포는 지형상 왜구들이 연안일대를 구락하기 위한 근거지로서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91) 한국 농촌개발 연구소,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준공 기록지』, (서울, 반도문화사, 2008), pp.224~239.

92) 『輿地圖書』 12권, 앞의 책, p.68. “保寧久爲倭寇巢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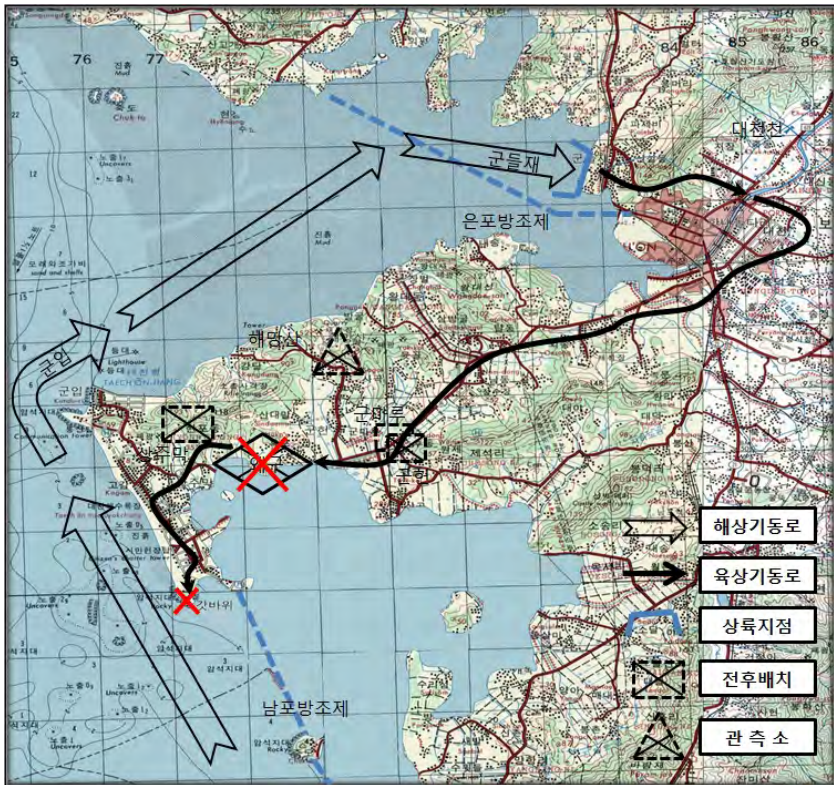
- v. **북병평** 또는 **북병이**는 군입으로부터 약 12km 이격된 대천 천 상류지점으로 보령시 북쪽에 있는 험준한 257고지의 봉황산에 인접한 서산 아랫마을이다. 지형은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군입과 의평리의 축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아마 왜구들이 방심하고 지나가도록 유인로(誘引路)로부터 이격된 지점을 선정한 것 같다. 지류로 보면 대천 천의 애로지점인 독정을 지나면서 한쪽은 북병이 쪽 지류이고, 다른 한 쪽은 의평리 쪽 지류로 갈라진다. 현재는 두 곳 다 저수지 안에 잠겨 있다.
- vi. **의평리**의 우리말 표현은 갬밭, 개미벌이다. 이곳은 보령에서 청양으로 이어지는 36번 도로 옆 청라 저수지 위쪽이며 폭이 약 1km가 넘는 넓은 들판이다. 이곳의 우측에는 680고지군의 성주산 등이 위치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791고지인 오서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에서 내륙으로 연결되는 통로이자 길목이다. 한편 의평리 가까이에는 100고지 이내의 구릉이 좌우로 형성되어 병하지벌, 불못골, 둔터의 고려군이 지형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후속하는 북병평 병력과 함께 협격하기에 용이한 지형으로 판단된다. 즉 당시의 무기체계를 고려 해 볼 때 유인된 왜구와 일전을 치르기에 안성맞춤인 지형이다.

이상과 같이 전술적 입장에서 보령의 지형을 분석해 보면 군입은 고려군이 들어온 곳이며, 왜구의 상륙지점은 군들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흑포지역은 왜구의 소굴이었고, 관암에서 전투가 최종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의평리 지역은 왜구와 결전을 치르기에 주효한 지형이며 북병이는 병력이 매복하기에 용이한 지형임을 알 수 있다. 기동방향 측면에서는 군입에서 의평리 지역으로 왜구를 유인하여, 왜구가 지금의 저수지 댐이 위치한 애로지점인 독정을 지난 후 북병평에 숨어있던 병력이 왜구의 후미를 타격한 것을 알 수 있다.

3) 흑포지역 기동로와 기동형태

흑포지역의 왜구에 대한 고려군의 공격 기동로는, 김성우의 부대가 북쪽을 향해 항해 중에⁹³⁾ 흑포에 있는 왜구의 소굴을 발견하고 군입으로 진입하여 군들재로 상륙하였으며 내륙으로부터 바다방향으로 공격함으로써 왜구를 소탕한 것이다. 이를 요도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요도 2 흑포 전투 기동로〉



93) 김성우의 직책이 전라우도 도만호임을 고려하면 수군의 본영이 충청도 이남지역으로 추정되고, 보령 북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고만(오늘날 송도라 부르는 지역으로 지금은 보령화력이 위치해 있다.)이 『고려사』 지리지 보령현조에 기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시에도 중요한 지역으로, 고만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만약 앞 요도에서 남쪽으로 향해 중이었다면 흑포 지역의 왜구를 발견한 후 군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역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하지가 않다. 한편 군들재로 상륙한 고려군은 약 2km 인근에 있는 한내 돌다리⁹⁴⁾ 지역을 도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돌다리가 있던 지역에 고려 말 당시에도 도하 수단이 있었을 것이며, 그런 곳은 간조 시에 도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내 돌다리로부터 흑포까지는 주변에 비해 비교적 평지인 오늘날의 36번 도로 축선을 이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목표지역에 접근 했을 것이다.

흑포에서의 전술은 오늘날의 교리로 보면 우회기동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우회기동은 적의 강력한 진지를 우회하거나 약한 측익이나 상공으로 기동하여 적 후방의 결정적 목표를 확보한 후, 적을 준비된 진지로부터 이탈시키거나 전환을 강요하여 공격부대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 부대를 격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준비된 진지가 아닌 공격부대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적을 유인 격멸하는 것이 포위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우회기동이 성공하여 적이 이탈하거나 전환을 시도하면 지체 없이 전과확대 및 추격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우회기동이다.⁹⁵⁾

그러면 김성우는 왜 이러한 작전을 수행했을까 하는 점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고려군은 수군이라 해도 빠른 소선 위주의 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대선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고려군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활동해 온 왜구에 비해 수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고려군과 왜구의 병력 규모 면에서도 수적으로 열세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만약에 흑포의 왜구를 보고 바로 공격했다면 수전이 되었을 것이며 서해안의 조수 간만의 차이와 열세한 병력으로 전승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와 같은 기동과 전술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흑포의 우회기동 형태를 오늘날 교리로 해석해 보면 고려군보다 우세한

94) 충남 유형문화재 139호, 조선시대 비인, 남포, 서천에서 한양으로 가는 대천 천에 설치된 길이 50여 미터의 돌다리로 17세기 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시대까지 우마차가 통행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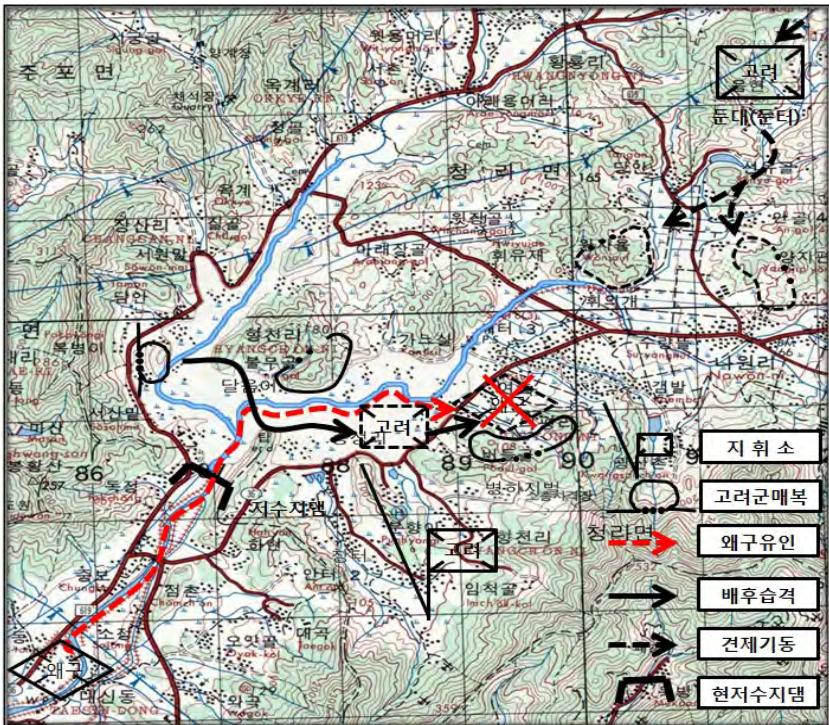
95) 육군본부, 『사단』, 앞의 교범, p.3-49.

왜구를 공격하기 위해 원거리로 우회하였으며, 내륙으로부터 고려군이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하여 적을 흑포에서 이탈 전환시키면서 접촉 유지하에 관암까지 추격하여 전과확대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의평리 지역 기동로 및 기동형태

의평리 지역의 왜구는 흑포지역의 왜구와 다른 왜구라 판단된다. 즉 흑포 전투 후 시루성의 구조물 건축이나 군현, 상주막 등의 부대배치 기간소요 등을 고려 시 다른 시기의 왜구일 확률이 높다. 흑포 전투와 별개로 보여지는 의평리 전투에서의 고려군 기동로를 요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요도 3 의평리 전투 기동로〉



왜구는 군입으로부터 내륙으로 이어지는 대천 천을 따라 의평리 지역으로 고려군에게 유인되어 왔다. 김성우의 주력 부대는 유인되어 오는 왜구들이 애로지점인 독정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복병이에 숨어 있었다. 독정을 통과한 왜구가 사전에 계획된 전투지대인 의평리에 도달했을 때 복병이의 병력들이 기동하여 왜구의 후미를 타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불무골과 병하지벌의 잔류병력이 협격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둔대에 있던 고려군도 의평리 방향을 향하여 어떤 식으로든지 기동하였을 것이다. 이 들 부대는 주 타격부대가 아닌 저지부대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는 군사적 식견이 있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작전형태인 것이다.

의평리에서 사용된 전술은 오늘날 군사교리로 분석해 보면 전형적인 기동방어 형태이다. 기동방어는 주 전투력을 동적으로 운용하여 적 주력을 계획된 지역으로 유인, 격멸하는 방어작전의 형태이다. 기동방어는 통상 지연전, 방어, 공격이 혼합된 형태로 수행되며, 공자(攻者)를 계획된 지역으로 유인하여 방어부대가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을 격멸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⁹⁶⁾

의평리 전투를 기동방어 교리로 해석해 보면 상주막과 군마루에 있던 병력은 경계부대 내지는 유인부대 역할에 해당한다. 병하지벌의 잔류 병력과 풀무골 주둔 병력은 고착부대에 해당하며, 둔대에 있던 병력이 예비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병이에 숨어있던 병력은 결정적 공세행동으로 적을 격멸하는 주력부대였던 것이다. 이를 작전형태별로 보면 상주막과 군마루 병력은 지연전을, 병하지벌의 잔류 병력과 풀무골 병력은 방어를, 복병이와 둔대의 병력은 공격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6) 육군본부, 『사단』, 앞의 교범, p.4-19.

5. 맺음말

본고는 고려 말 시대적 상황과 군사제도 등 사료 검토와 지명유래에 대한 군사적인 측면의 지형분석을 통하여 고려 말 보령지역에서의 왜구토벌시 김성우의 고려군과 왜구의 규모, 전투시기, 부대배치 그리고 흑포와 의평리에서의 기동형태 등 당시의 전투상황을 재현해 보았다. 물론 사료의 제한으로 금석문과 지방지 등에 근거한 검토라는 제한사항도 있었다. 그러나 고려 말 시대적 상황의 공간에서 퍼즐식 상황맞춤과 지형에 대한 군사적 평가를 검토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당시 김성우는 전라도에 배치된 수군 만호였다. 만호리는 직책은 그의 가계에서 세습되었거나, 고려 후기 군제가 다양하던 시기에 수군이 재건되면서 우왕 대에 만호부제가 남도 지역에 시행된 시기에 임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김성우의 고려군 규모는 소규모이어야 보령에 정착할 수 있었던 점과 다른 도만호의 규모를 고려 시 병선 2~3척에 병력은 140~240명 정도였을 것으로 보았다. 왜구는 일본 남북조 전쟁의 무장집단 세력으로 오랫동안 소굴을 이뤘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최소한 선박 20척 이상으로 병력은 340~640으로 추정하였다. 전투 시기는 당시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보령 현이 함락된 우왕 9년으로부터 공양왕 2년을 전후한 시기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김성우와 관련된 보령지역의 각종 지명들에 대하여 지형분석과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지명유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김성우의 부대위치와 전투 간 기동형태 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김성우 부대들의 각 위치는 지휘소인 시루성을 중심으로 지형의 이점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오늘날 3지대 방어개념과 동일한 배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공간적 중앙의 지휘소 위치선정과 전초부대 배치, 매복부대 및 예비대 운용 등에서 김성우의 작전적, 기술적 혜안과 탁월한 지형분석 능력을 알 수 있었다.

흑포 전투에서의 공격 기동형태는 우회기동이었다. 즉 전투방법을 결정

하고 공격부대를 유리한 위치인 군들재까지 원거리로 우회 기동시켜 내륙으로부터 공격함으로써 전승을 달성한 전투였다. 또한 전투 후에는 전투지역에 부대를 배치하여 지역을 완전히 평정함으로써 전투에서의 승리를 전쟁의 승리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평리 전투의 작전형태는 오늘날 전형적인 방어 작전형태의 하나인 기동방어였다. 김성우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주 전투력을 복병이로부터 동적으로 운영하여 사전에 계획된 의평리 지역으로 적을 유인하여 격렬한 전투였다. 또한 배치된 병력으로 볼 때 지연전과 방어, 공격작전을 혼합한 전투였다.

결론적으로 고려 말 김성우는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탁월한 군사적 식견과 혜안으로 왜구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또한 보령을 지켜냈다. 이러한 김성우의 보령지역 왜구토벌 전투에는 다양한 형태의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전사(戰史)는 향토수호와 임무완수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군 지휘관들에게 책임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형연구와 다양한 전술의 통합된 응용능력을 배양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11. 6. 30, 심사수정일 : 2011. 8. 5, 게재확정일 : 2011. 8. 16)

주제어 : 김성우, 도만호, 왜구, 지명유래, 지형분석, 부대배치, 흑포전투, 의평리전투, 우회기동, 기동방어

<ABSTRACT>

Military Study on Sungwoo Kim's Victory over Japanese pirates in Late Goryeo Dynasty

Lee, Jae-joon

No historical record exists regarding Domanho Kim Seong-wu (1330~1392) and his operations to repel Japanese Pirates in the late Goryeo Dynasty. Only his family and title is known from the words on the tombstones of descendants and the place-names around Boryeong region, originated from the battle against Japanese Pirates, can be found in local documents and geography books from the Joseon Dynasty. Despite the lack of historical data, the existence of Kim Seong-wu and his victory over Japanese pirates have been confirmed true through previous studies.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cover the Goryeo Dynasty's troop disposition and maneuver patterns during the fight against the Japanese Pirates.

Prior to analyzing troop disposition and maneuver patterns at that time, this study explores the size of both Goryeo Dynasty and Japanese Pirates' troops and the exact time of the battle. Kim is known to be *Jeolchung General* and *Domanho of the east Jeonla Province*. However, based on the military system and historical circumstances in late Goryeo Dynasty, it would be more plausible to say that Kim was a *Manho* assigned to the east Jeonla Province during the reign of King Wu in the late Goryeo Dynasty. The title *Domanho* seems to be given to him later on. The number of Kim's troops is estimated to be around 140~310 with 2~3 fleets, while that of Japanese Pirates is to be around 340~640 with about 20 fleets. It is also presumed that the time of the battle was around 1346 during the reign of King Gongyang on the basis of the invasion of Japanese Pirate to Boryeong region and circumstances at that time.

Also, this study ascertains whether he actually dispatched his troops

around the area known to be Kim's post, via geographic and regional analysis. In terms of military action, the analysis has confirmed that most origins of the place-names would be true. Kim made the best use of the region strategically in that his troop disposition was similar to contemporary ones. Utilizing the concept of 3-zone defense. With this concept based by Kim, it is certain that Kim had military and tactical knowledge, and he leveraged geography in the battle.

The maneuver patterns of Heukpo and Uipyong-ri, the primary battlefields, have been examined by drawing the route of the troops from the place-names. These place-names have been selectively chosen not only from stories passed down mouth to mouth but also from *Yeogidoseo* and *A Surve of Korean Geographical Names*, books that deal with General Kim's victory over Japanese Pirates. After geographical analysis of the selected battle fields, the possibility of the battle and their maneuver patterns are examined.

Based on the examination, during Heukpo battle General Kim deployed bypass maneuver. In order to exterminate the Pirates, Kim's army took a detour to Gunyip landing safely on Gundeuljae and successfully defeated them by approaching from inland. Also, in Uipyong-ri battle, he employed maneuver tactic. During the fight, General Kim took advantage of geography to lure the Pirates into a trap while effectively mobilizing his troops to Bokbeongyi. From these two battles, it can be concluded the victory over Japanese Pirates around Boryeong in medieval times was a comprehensive one that combined successful attack, defence, and delaying tactics.

In conclusion, in spite of the inferiority in number and weapon, Kim Seong-wu protected Boryeong from the Japanese Pirates with military wisdom and ingenious strategy making the best use of geography.

Key Words : Kim Seong-wu, *Domanho*, Japanese Pirates, Origins of Place-names, Geographical Analysis, Troop Disposition, Uipyong-ri Battle, Heukpo Battle, Bypass Maneuver, Maneuver Defense.